

회원기업으로 부터 사랑받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상공회의소

2017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영동향 조사

2017. 12

〈 조 사 요 약 〉

【2017년 매출 실적】

○ 2017년 매출은 전년대비 2.8% 소폭 증가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매출 신장이 미약한 반면 편의점은 큰 폭 증가
-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크게 완화되지 못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침

○ 업태별로는 전년대비

편의점(11.1%), 대형마트(2.6%), 백화점(1.0%), 슈퍼마켓(0.3%) 증가

업종	증감률(%)	2016년 대비 2017년 실적 증감사유
백화점	1.0	명품 브랜드 및 입점 브랜드 확대, 주중 마케팅 강화, 매장 확대 및 리뉴얼
대형마트	2.6	자체 PB상품 강화, 소용량·소포장 확대
슈퍼마켓	0.3	1인가구 맞춤형 상품강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상품군 확대, 지역 상권 맞춤형 마케팅
편의점	11.1	프로모션 강화, 리브랜딩, 신규 출점 증가

【2018년 매출 전망】

○ 2018년 매출은 2017년대비 0.2% 소폭 증가로 보합 전망

-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매출 증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불투명, 금리인상,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위험 등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돼 2017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업태별로는 2017년대비

편의점(1.9%)과 슈퍼마켓(0.3%) 소폭 증가,
대형마트(0.0%)와 백화점(-0.4%) 약보합세

업종	증감률(%)	2017년 대비 2018년 전망 증감사유
백화점	-0.4	구매력 저하, 고가 상품 소비 부진, 해외직구 증가
대형마트	0.0	구매력 저하, 역외 인구 유출, 지역 내 대형마트 과포화
슈퍼마켓	0.3	일부 업체 신규 출점, 슝인슝 형태 시설 입점, 각종 고객센터 강화
편의점	1.9	리뉴얼 브랜드 중심 신규 출점 지속 확대

【내방고객 및 객단가 현황】

- 2017년 내방고객은 전년대비 **백화점(3.2%)**, **대형마트(3.2%)**, **편의점(2.9%)** 증가
슈퍼마켓(-0.3%)은 소폭 감소
 -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각종 편의시설 입점, 고객서비스 강화 노력으로 증가
- 2017년 내방고객들의 객단가는 전년대비
편의점(-4.5%), **대형마트(-1.0%)**에서 감소 **슈퍼마켓(1.0%)**과 **백화점(0.4%)**은 증가
 - 편의점의 객단가는 지역 내 신규 점포 증가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저가 PB상품 확대, 담배 수요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다소 크게 감소

【고용 및 점포 현황】

- 2017년 고용 인원은 전년대비 **1.1% 소폭 감소**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대비 경영 내실화를 위해 신규채용 감소, 계약해지 등의 감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점포 현황은 전년대비 **편의점에서 19.4% 크게 증가**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신규출점 제한으로 점포수가 늘지 않았으나 규제 대상이 아닌 편의점은 리뉴얼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규 점포 증가세 지속
 - 2018년 신규 출점 계획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높은 증가세 지속 전망

【경영 애로요인】

- 2018년 가장 우려되는 경영상의 애로요인은
「최저임금 상승」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 23.3%, 「온라인·모바일로의 소비 채널 이동」 20.0%, 「업체 간 경쟁심화」 16.7%, 「청탁금지법 영향 지속」 3.3% 등의 순
 -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상승을 가장 우려
 - ※ 편의점(80.0%), 슈퍼마켓(83.3%) 최저임금 상승 우려
 - 의무 휴일제 주중 확대, 취급 품목 제한, 백화점의 의무 휴일제 도입 등 현행 유통규제가 강화될 경우 업황 부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

< 개 요 >

1. 조사 목적

- 부산지역에 소재한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경영동향과 2018년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업체들의 경영활동 계획과 향후 관련 정책 건의 및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2. 조사범위 및 대상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

-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SSM), 편의점

3. 조사기간

- 2017년 12월 4일 ~ 12월 29일

4. 조사방법

- 조사표를 통한 전화 및 팩스 조사
 - 조사표 회수: 리서치한국

5. 조사내용

- 2017년 매출 실적 및 2018년 매출 전망
- 소매유통업 고객 동향
 - 1일 평균이용고객수, 객단가
- 고용 및 점포 현황
- 2018년도 우려되는 애로 요인

6. 유의사항

- 동 조사는 부산 소재 전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전반적인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시장 전체의 통계치를 제공하지 않음.

〈 목 차 〉

I. 매출실적 및 전망		1
1. 2017년 매출 실적		
2. 2018년 매출 전망		
II. 고객동향		5
III. 고용 및 점포현황		6
IV. 2018년도 가장우려되는 애로요인		7

I

매출실적 및 전망

1. 2017년 매출 실적

가)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2017년 매출 실적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매출은 전년대비 2.8%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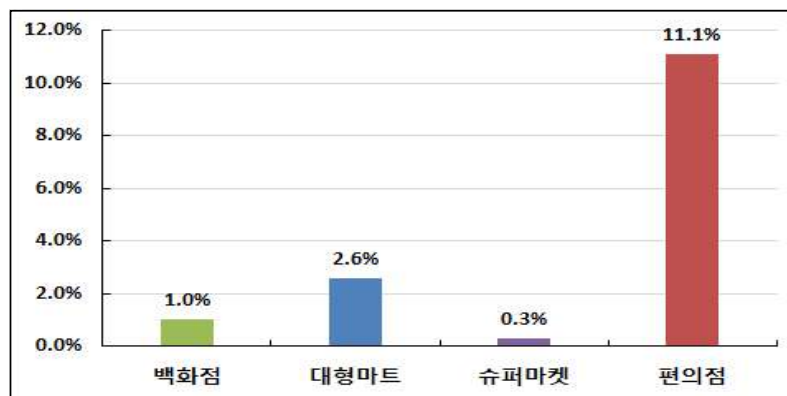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매출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SSM)에서 소폭 증가, 편의점은 큰 폭 상승
- 지역 소매유통업계는 연중 프로모션 및 행사 시행, 고객 서비스 확대 등 마케팅 강화와 점포 확대 및 신규출점 등 외형 확대 노력을 지속했으나, 소비심리 부진으로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침

나) 업체별 2017년 매출 실적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업체별 매출을 살펴보면, 편의점이 전년대비 11.1%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어 대형마트(2.6%), 백화점(1.0%), 슈퍼마켓(0.3%) 순으로 증가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별 매출 증감률



○ 백화점

-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명절특수 상실 등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 각종 프로모션 시행, 명품 브랜드 강화 및 입점 브랜드 확대, 평일 마케팅 강화, 매장규모 확대 및 리뉴얼 시행 등 외형확대 전략으로 전체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1.0% 증가

○ 대형마트

- 신선식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는 가뭄과 폭염, AI와 계란 파동 등 각종 재해 발생, 유통규제로 인한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자체 PB상품 강화,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출시, 수입맥주 · 지역 맥주 마케팅 등의 효과로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2.6% 증가

○ 슈퍼마켓(SSM)

- 슈퍼마켓 역시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강화, 화장품 및 건강식품 상품군 확대, 주변 상권 맞춤형 마케팅 시행 등의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대형마트와 편의점 대비 경쟁열위,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규제의 영향으로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0.3% 소폭 증가에 그침

○ 편의점

- 각종 PB상품과 생필품 · 간편식 확대, 택배 및 금융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연중 프로모션 확대, 일부 브랜드의 리브랜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점포 확대로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11.1% 증가

부산지역 소매유통업태별 매출 증감률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망	증감률[%]	
				2016년 대비 2017년 실적	2017년 대비 2018년 전망
백화점	32,847	33,190	33,070	1.0	-0.4
대형마트	23,470	24,090	24,096	2.6	0.0
슈퍼마켓	10,946	10,976	11,007	0.3	0.3
편의점	10,437	11,595	11,815	11.1	1.9
전 체	77,701	79,850	79,987	2.8	0.2

2. 2018년 매출 전망

가)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2018년 매출 전망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8년 매출은 전년대비 0.2% 소폭 증가로 보합 전망

- 2018년은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등 각종 특수에 따른 매출 증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 회복세 둔화, 금리인상과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위험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온라인·모바일로의 소비채널 이동, 해외직구 비중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한편, 편의점의 신규 출점 증가로 전반적인 소매유통업계의 경쟁심화 및 개별 점포 당 매출 하락이 우려

나) 업태별 2018년 매출 전망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8년 업태별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1.9%, 0.3% 증가, 대형마트는 보합, 백화점은 0.4% 감소 전망

○ 백화점

- 백화점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5만원 이상의 상품군 수요 증가, 사드 조치 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기의 부진으로 구매력 저하, 상권약화, 고가상품 소비 부진이 예상되면서 2017년 대비 0.4% 소폭 감소 전망

○ 대형마트

- 대형마트는 각종 마케팅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인구 유출, 지역 내 대형마트 과포화 등으로 매출은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슈퍼마켓(SSM)

- 슈퍼마켓은 유통규제와 업태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출점을 통한 외형 확대와 편의 시설 확대, 배송서비스를 비롯한 고객 서비스 강화를 바탕으로 매출은 2017년 대비 0.3% 소폭 증가 전망

○ 편의점

- 편의점은 기존 진행되던 각종 프로모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뉴얼 브랜드를 중심으로 2017년에 이어 신규 출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매출은 1.9% 증가 전망

II

고객 동향

1. 2017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고객 동향

가) 내방고객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내방고객은 전년대비 백화점(3.2%), 대형마트(3.2%), 편의점(2.9%)은 증가했으나, 슈퍼마켓은(-0.3%)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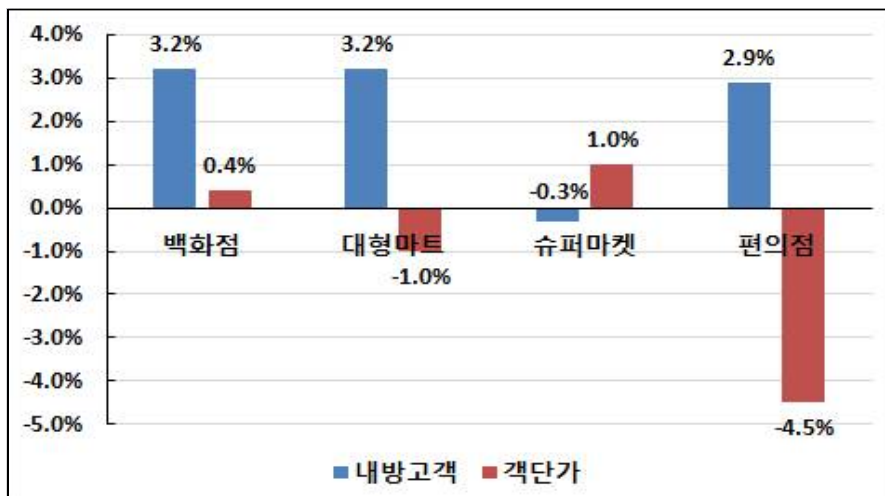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의 고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 강화, 맛집과 각종 편의시설 입점, 고객 서비스 강화 노력으로 내방고객은 전반적으로 증가
- 백화점은 사드보복 조치와 북핵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고객 증가세 둔화 ※지난해 7.2% → 올해 3.2%

나) 객단가

조사에 응답한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내방고객 객단가는 전년대비 편의점(-4.5%), 대형마트(-1.0%)에서 감소한 반면, 슈퍼마켓(1.0%)과 백화점(0.4%)은 증가

- 편의점은 지역 내 신규 점포 증가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저가형 PB상품 확대, 담배 수요 감소 등으로 객단가 부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별 일평균 고객수와 객단가 증감률



Ⅲ

고용 및 점포 현황

1. 2017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고용 현황

편의점을 제외한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2017년 전체 고용 인원은 전년대비 1.1% 소폭 감소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의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인원의 총 합 기준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체의 2017년 고용인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모두 소폭 감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경영 내실화를 위한 신규채용 감소, 계약해지 등의 감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부산지역 소매유통업태별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백화점	3,745	3,619	-3.4	6,045	6,060	0.2	1,374	1,381	0.5
대형마트	3,029	3,013	-0.5	53	46	-13.2	1,886	1,888	0.1
슈퍼마켓	1,626	1,619	-0.4	1,471	1,436	-2.4	532	478	-10.2
전 체	8,400	8,251	-1.8	7,569	7,542	-0.4	3,792	3,747	-1.2

2. 2017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점포 현황

2017년 점포 현황은 백화점과 대형마트(1개체 감소), 슈퍼마켓은 지난해 대비 소폭 줄거나 같았던 반면, 편의점은 전년대비 19.4% 증가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신규 출점 제한으로 인해 점포수가 늘지 않았으나, 규제 대상이 아닌 편의점은 리뉴얼 브랜드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외형확대에 나서고 있어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또한 2018년 출점계획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편의점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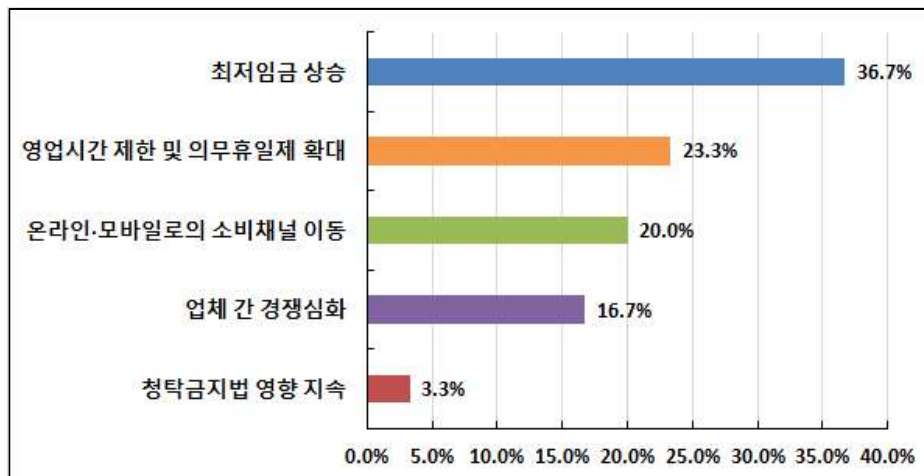
2018년도 가장 우려되는 애로요인

1. 경영상의 애로요인

조사에 응답한 소매유통업체들이 2018년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요인은 「최저임금 상승」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 23.3%, 「온라인·모바일로의 소비채널 이동」 20.0%, 「업체 간 경쟁심화」 16.7%, 「청탁금지법 영향 지속」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8년도 가장 우려되는 애로요인



가) 최저임금 상승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파트타임 고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특히 악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편의점(80.0%), 슈퍼마켓(83.3%) 최저임금 인상 우려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

- 유통규제의 강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의무휴일제 주중 확대와 판매 품목 제한, 백화점의 의무휴일제 도입 등 규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 소매업계의 매출진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황 부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